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5 No 4
2024.1.14.

2023 WINTER 겨울

한울타리

편집 및 발행 : 홍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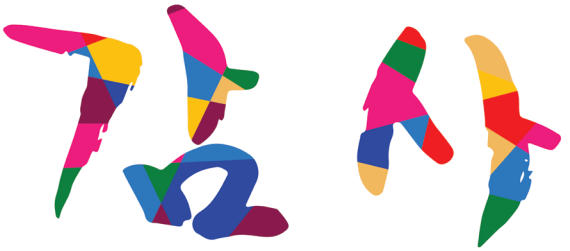
Contents/ 목차

권두언 2
예배예술위원회 3
쉐마행사위원회 4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5
교인1부 위원회 6
새교우 가정 소개 7
교인2부 위원회 9
EM/BM Worship Service 10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11
해바라기 주일학교 12
Ransom 중고등부 13
청년 2부 - 대강절 말씀 묵상 프로젝트 14
“일 년 한 번 성경 일독 하기” 첫 윤에 맞춘 시 15
교육3부 위원회 16
Opinion - Bible Trivia 16
부부청년부 17
구역소개 시리즈 세번째 -남서 구역 18
칭찬합니다 19
마리아 여성회 21
국내선교 위원회 22
선교지에서 날아온 소식 23
선교사와의 일문일답 24
선교사 근황 26
권사회 28
상록기도회 29
은퇴 장로 기도회 (은.장.회) 30
한국 문화 축제 후기 31
Presbytery assembly 와 일 년간의 COM 활동을 돌아보며 32
교우 동정 34
옛교우 동정 35
2024년 새해 덕담 35
편집후기 37
교회 행사 및 모임 안내 38

권두언

이영길 목사

감사하는 한해



70주년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의 말씀을 상고하며 지냈습니다. 70주년이 저물어 가면서 자주 말씀드리던 YPK는 어떤 감사를 하였겠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동주는 서시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그동안 윤동주가 사랑했던 모든 것 특히 민족과 문화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합니다. 곧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라고 생각해도 좋을듯 합니다.

반면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님이 멤피스에서 암살당하기 바로 전 날 “나는 약속의 땅을 보노라”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만일 역사의 시작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어느 역사에 다시 태어나길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리고는 당신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바로 20세기 미국에서 태어나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둡지만 미국 역사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로마로 죄수가 되어 끌려 가기 전 아그립바 왕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바울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랑하며 감사하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나간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감사했던 이들은 도리어 오고 가는 미래를 가꾸어 나갔던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나간 70년을 감사하십시다.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배예술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부위원장 김대식 집사

팬데믹 이후 예배예술위원회의 봉사자를 충원하고 재정비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타 주로 떠난 교우들이 다수 있는 반면, 새로 온 교우들도 많이 있어서 새롭게 봉사에 참여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배예술위원회의 각 팀들은 신입회원을 영입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알게 모르게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해 바른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대, 찬양팀, 슬라이드/방송팀, 통역팀, 예배위원들,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스톤한인교회가 2023년 53주 매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주일 1, 2부 예배와 토요 아침기도회:** 계속해서 매주 1, 2 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7일 2부예배는 제직임직예배로 드렸고, 10월 1일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정의평화환경주일, 10월 8일 2부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 10월 29일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2부예배는 부부청년부 헌신예배, 11월 5일은 청지기 헌신주일,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창립 70주년 기념예배, 12월 3일은 대강절 첫 주 대강절 절기예배를 시작으로12월 24일 성탄주일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토요일 오전8시에는 계속해서 본당에서 아침기도회를 가지고 지역사회, 교회,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제직임직식:** 9월 17일 2부예배는 제직임직예배로 드려졌고, 7명의 신임제직 (6명의 안수집사, 1명의 권사)이 임직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에스더 여성회가 주관하고 각 구역모임에서 준비한 오찬을 전교인이 함께 나누며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찬양대:** 1, 2부 찬양대는 11월 한 달간 신입 찬양대원을 모집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신입대원 – 박초롱, 이문희, 정혜정, 장원석, 김고은, 김규전, 정민지, 강권묵, 전동현, 김영순). 성탄이브축하예배를 위해 12/11, 12/14, 12/18, 12/21에 칸타타 합창연습을 하고 12/23 (토)에 최종 리허설로 준비한 칸타타는 12월 24일 밤 성탄이브예배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드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찬양대를 섬기셨던, 한승희 장로님/김경애 권사님이 올해를 끝으로 찬양대를 떠나십니다.

4. **찬양팀 / 찬양과 기도의 밤:** 찬양팀에서 준비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시편의 밤' 이 11월 18일 오후 6:30에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참여하였고, 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은 계속해서 주일 2부 예배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고, 매주 오전 말씀나눔, 매월 찬양연습을 위한 월례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본당 전방 우측에 hanging mic 설치:** 10월 28일 교회 대청소 때 본당 전방 우측에 hanging mic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본당 전방의 스크린을 철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방송팀/예배예술위원회 모임:**방송팀은 주일예배에 1명의 봉사자가 방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재정비 중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방송팀을 중심으로 8명이 참여한 예배예술위원회 줌미팅 모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을 거치면서 변화된 예배환경을 살피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몇 가지 주요한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 각 부서에서 보내는 방송 슬라이드 제작에 필요한 자료는 금요일까지 제출요청 (참고: 해당 부서에서 슬라이드를 제작할 경우 MS 파워포인트의 최소 폰트 사이즈 32로 제작 요망); 2) 온라인 예배 참여에 관한 survey 계획; 3) 신임집사들의 헌금/예배위원 봉사참여 필요성 공감. 당회에서는 예배예술위원회의 보고를 참고로 1월부터 예배 안내위원을 통해 교인들이 헌금접시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7. **제직회:** 12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집사회 총회 및 제직회를 집사회와 함께 준비했고, 1부 만찬, 2부는 제직회로 진행되었습니다.

8. **본당 습도조절 :** 본당에 습도/온도 측정기와 습도기를 설치하여, 동절기 본당 예배시 건강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쉐마행사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11월 쉐마의 밤은 “새가족환영과 감사”라는 타이틀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에 앞서, 올해도 풍성한 땡스기빙 음식을 쉐어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새롭게 북동구역에 오신 이태경/최미래/한나/라헬/사라 가정이2023년 마지막 쉐마의 밤의 촛불을 밝혀 주었습니다. 5명의 귀한 새가족이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잘 적응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어진 쉐마찬양팀은 김수영 목사님을 이어서 홍민기 형제님이 쉐마 찬양팀을 이끌어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조인하신 윤영자 권사님, 홍정표 집사님과 청년부에서 함께해준 Sam, Ashley, Hyun, Sung 로인해 찬양팀이 더욱 풍성한 감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다함께 율동을” 시간에 신보경 집사님과 함께 어린이들 찬양과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은, 지애 (Grace), 지인 (Elizabeth), 유준 (Daniel)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앙상블이 육혜진 집사님의 피아노에 맞춰서 “You Raise Me Up”을 연주해 주었는데 아이들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엄재관-이정규 장로님께서 재치와 유머를 담아서 새교우들의 감사 메들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암소쏘리”가 자꾸 머리에 맴도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해내려오는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이번에는 특별히 남선교회와 함께 상록회의 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른들의 정성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길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q7BjGuPZLk&t=4233s

마지막으로, 쉐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쉐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장로
부위원장 배광현 집사

1. 2024 달력 도착 (NOV, 2023)

지난 8월에 주문했던 2024년 달력이 도착하였습니다. 각 가정당 1개씩 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사업장용으로 1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못 받으시는 교우님들 한 분도 없이 다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쉐마의 밤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포 (11월 19일 주일예배시 상영)

늘 그렇듯 이번 11월 쉐마의 밤 홍보 영상도 홍보위원회에서 정성껏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주일예배시 짧은 홍보 영상을 전교인과 함께 나누었고, 이 외에 이메일 및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전달하여 홍보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3. 제직회 '한해를 돌아보며' 영상 제작

영상 제작은 매년 수고해주시는 윤병준 집사님께서 올해도 멋진 영상 만들어 나누어 주셨고, 영상에 들어갈 사진들을 모아주시는데 특히 윤경문 목사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영상은 교회 유투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KvO8025H3E)

4. 사순절 묵상집 원고 모집 (발간 예정일 2월 11일)

2024년 사순절 묵상집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원고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Ash Wednesday (2월 14일) 전인 2월 11일에 발행을 목표로 합니다. 1 페이지 정도의 신앙 이야기와 짧은 한 줄 기도로 마감시키는 글이면 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영어 에세이가 많이 담길 예정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영어가 편한 교포 분들과도 많은 나눔이 가능해지리라 예상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epiyodler@hotmail.com)

5. 이벤트, 부서/구역 홍보

각 그룹의 이벤트나 부서/구역 홍보가 필요한 부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위원회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 (사진기자, 영상기자, 영상편집자, 편집위원 등)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인 1부 위원회

정광근 장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교인들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 요즘에도 보스톤한인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지 않은 교우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이어져 3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중단 되었던 새교우 환영반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3년 한 해 동안도 유우진/김정인, 김성재/곽선미, 유영하/이유경, 이예복/김주영, 김호영/박영롱, 박좋아/이겨레, 장유진/왕희연, 김성진/김나리, 홍선표/김주리, 이태경/최미래, 송인우/최연경, 김경철/김혜진, 양동표/양정애, 오준태/김종금, 김선숙 교우등 총 15가정이 새교우 환영반을 마치셨습니다. 특별히 이정규/김영미 장로님 가정에서 2023년 마지막으로 새교우 분들을 가정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맛있는 만찬과 함께 즐거운 환영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듯 새로운 신앙인들을 만나고 주님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보스톤 한인교회의 일원이 되셨으니 이분들과 함께 더욱 소중한 그리스도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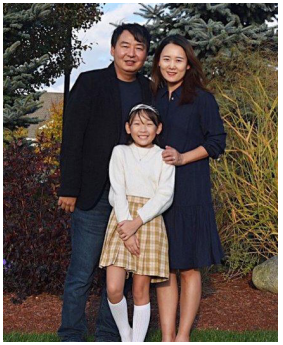
지난 8년 동안 새교우 환영반에서 부장 집사로 섬겨 주셨던 신준섭/박예리 가정이 텍사스로 이주하셨는데 그 동안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부 예배에서 교인위원으로 오랫 동안 섬겨주셨던 김동숙 권사님께서도 뉴저지로 이주하셨는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신 권사님께도 한울타리 소식지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인 1 위원으로 섬겨주셨던 이화옥, 이재명, 박상철, 이혜경, 이동화, 백현 교우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4년도 잘 부탁 드립니다~

환한 웃음과 진심 어린 반김으로 매주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려 보스톤 한인교회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우리 교인1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교우 가정 소개

정제영/유인선/정진서 가정

저 유인선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이고, 현재 MGH Radiology에서 연수 중이고 아들 정진서는 Pierce School 4학년입니다. 남편 정제영 집사는 한국에서 진정한의원을 운영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륜교회 교인이고, 보스턴에는 아이와 둘이 1년 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보냄에 있어 걱정이 많았으나 좋은 곳에 와서 적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보스톤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서 혼자 있는 아이 아빠에게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홍선표/김주리/홍지연 가정

안녕하세요, 홍선표/김주리/홍지연 가정입니다. 남편 홍선표는 인텔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저(김주리)는 주부이고, 홍지연은 9살 외동딸입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송인우/최연경/송예린, 송율 가정: 부부청년부

송인우 최연경 가정입니다. 저희는 3살 딸 예린이와 이번에 갓 돌이 지난 아들 율이와 함께 2023년 2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벌링턴에 살고 있습니다. 율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으로 와서 양가의 도움 없이 아이 둘의 육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이 곳에서 저희 또래 육아 동지들도 만나게 되어 주님의 도우심과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보스턴에서 더욱더 많은 추억을 쌓아 가길 기대해 봅니다^^

김호영, 박영롱 가정: 부부청년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주에서 떨어져 지내다가 올해 2월에 브루클라인으로 함께 이사를 오게 된 김호영, 박영롱 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고민없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 최수종을 꿈꾸는 남편은 매주 수요일 탁구 동우회에서 탁구를 치며 행복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대해왔던 아내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알아가며 즐거운 보스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루하루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경/최미래/한나, 라헬, 사라 가정: 북동구역

안녕하세요!

저 이태경은 82년생, 아내 최미래 자매는 81년생이며, 첫째 딸 한나(7), 둘째 딸 라헬(4), 그리고 막내딸 사라(9개월)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제가 회사(LG화학) 지원으로 2년간 Tufts에서 석사과정 (Sustainability)에 참가함에 따라, 온 가족이 8월 중순에 보스톤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오기 약 1년 전부터 교회를 알아보았고, 이렇게 보스톤한인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온지도 3개월이 되어가는데 가족들이 잘 적응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뜻깊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도제목:

- 우선 제 자신이 오랜만에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데 노력한 만큼 지혜를 주시길…
- 첫째와 둘째가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만끽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하길…
- 어린 셋째가 건강하게 엄마 아빠 품에서 잘 자라나 주길…
-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곳 보스톤에서도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아울러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인 2부 위원회

위원장 최현구 장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표어를 안고 시작한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올 한 해 교우님들의 동향을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총23분이 활동교인으로 등록되었는데, 교인1부위원회(정광근 장로)의 주관으로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시작된 새교우환영반 교육을 마치고 당회의 인준을 거쳤거나, 이전에 활동교인으로 본 교회를 섬기다가 전출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계시다 다시 복귀하여 당회의 인준을 거쳐 활동교인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 김성진/김나리, 김성천/이지선, 김호영/박영롱, 민동국/박영애, 박좋아/이겨레, 박초롱, 설재훈, 양원제/최효영, 유영하/이유경, 유우진/김정인, 이예복, 장유진/왕희연, 홍선표/김주리

그리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생명들도 8명이나 됩니다.

- 송지훈(송동현/구다희), 임하리(임극유/이수경), Elena(유우진/김정인), 방재준(방수연/김지은), 장견우(장유진/왕희연), 전시우(전 션/김현지), 심지오(심상완/박주은), 강세린(강링봉/오지원)

또한 올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고 또는 견신을 마친 교우가 각각 2분과 1분, 부모님들의 고백과 약속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6명입니다.

- 세례: Adam Choi, 한 국

- 견신: 백은채

- 유아세례: 설지현(설재훈/이현정), 송예린, 송율(송인우/최연정), 심지오(심상완/박주은), 장예원(장 폴/이세아), 전시우(전 션/김현지)

한편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타주로 혹은 한국으로 16분이 이주/귀국하셨습니다.

- 강모영/박선영(한국), 김동숙(뉴욕), 김동훈/방서현(한국), 김성재(한국), 김우영 (캘리포니아), Matthew Taitano(인디애나), 신준섭/박예리(텍사스), 오해림(펜실베니아), 정혜영(뉴욕), 조제국/김명희(시애틀), 차성광/안세진(홍콩)

감동과 아쉬움을 간직한 2023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실 2024년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교인2부위원회 인사를 갈음합니다.

English/ Bilingual Ministry

Elder Sang Kang

Shalom!

As 2023 is closing, our church's English service has been worshiping for the past 15 months. Starting as having worship services once a month in 2022, then starting 2023, we have the services twice a month. Then during this year, besides two services a month and we are having bible study & discussion time on Sunday we are not having the services. Still small numbers (12-15 people) are gathering for the services, but our services have consistent members and are stabilizing as we move to 2024.

With a shortage of human resources, we are able to organize gatherings every Sunday because of the dedication of a few members of the EM/BM task force. We would especially like to give thanks to John Bu for leading praises every Sunday, and Rev. David Eunil Cho for providing blessing sermons. We also would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Rev. John Sweet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for guest preaching when Rev. Cho is not available.

We are looking forward to 2024 expecting more blessings from God. We are also asking prayers from our congregation for EM/BM ministry in our church. God bless you everyone-

(1st Anniversary Lunch Gathering)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안성완 장로

지난 10월 8일 1, 2부예배후에 “책 바꿔봐요 & 골프용품 나눠요” 행사를 열었습니다.

1부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2부예배 후에는 현관 앞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과 골프용품을 기증하여 주시고, 행사 때 오셔서 아이들 혹은 손주들의 책을 구입하여 주셔서 $305 행사 수익금이 모였습니다. 모금된 행사 수익금은 교회와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재정부에 입금하였습니다. 비록 큰 돈이 모금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구 환경에 큰 관심을 갖게된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내년 2024년에도“책 바꿔봐요 & 골프용품 나눠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텀블러”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 교인이 개인컵(텀블러)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구환경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사와 캠패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교인분들과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분들: 김경섭 집사, 양수연 집사, 이혜정 교우, 조이남 집사, 진정원 집사, 안성완 장로

해바라기 유초등부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안녕하십니까 보스톤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선플라워를 섬기는 박예원 전도사입니다. 지난 가을호에서 인사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겨울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흘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희 어린이들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매 주일 만나는 설교자가 다르면 불안할 터인데, 그 시간을 잘 견디어내고 제게 다가와 물어보기를, 전도사님은 언제까지 오실 거냐는 질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내년에도 함께할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불안을 목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진한 책임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또한 이 부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깊이 부어주시는 눈물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서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짙은 사랑의 무게 앞에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군요. 그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는 주요한 자리들이 공석이었습니다. 부장 그리고 초등 부감 선생님들의 부재 속에서 그럼에도 남아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주어진 자리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을과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올 12월부터 심진희 신임 부장 집사님, 정혜윤 신임 초등 부감 선생님, 그리고 박영애 신임 영유아 부감 선생님께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교사로 자원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진과 함께 새해를 꿈꾸는 2024년 선플라워의 성경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4-16절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저희 선플라워 어린이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이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고, 순수한 손길들을 통하여 치유함이 일어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언제나 기도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 교사로 자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꼭 강상철 장로님이나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Ransom Youth Group

정은택 전도사

안녕하세요, 보스톤한인교회의 상큼함을 맡고 있는 Youth Group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을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배경미 전도사님께서 8월 말로 사임하시고, 정은택 전도사님이 9월 초에 부임하여, 9.10일 교사 워크샵과 17일 학부모/교사 연합 회의를 통해 앞으로 부서의 미래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Lock-in을 통해 새로 올라온 6학년 아이들부터 고학년까지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주셨고,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게임들을 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마음껏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락인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배 시간이 11시에서 11시 반으로 조정되면서, 예배 시작 전 30분 동안

Pre-Activity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를 같은 학년 내에서만 진행하다보니, 다른 선배,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매달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시는 활동들을 통해 다채롭고 재밌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호박을 장식했고, 11월에는 음식 나눔 및 시니어 센터에 보낼 선물들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2월에는 성경 읽기 및 선교사님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을 부대끼며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스 그룹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유스그룹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루터기 청년2부

“대강절 말씀 묵상 프로젝트”를 마치며

윤경문 목사

올해 대강절을 맞이하여 청년 2부에서는 “대강절 말씀 묵상 Project”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강절 기간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 말씀 묵상 Project” 에 sign-up을 한 청년들이 묵상의 글을 하루 하루 올려주어 청년 2부 교우가 함께 대강절의 기다림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로운 글을 올려준 모든 청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개의 묵상글을 교우님들과도 나눕니다.

대강절 묵상 1. 윤대원 교우
묵상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6-36

이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 당시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함께했을 것이 공감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할 것임을,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인 것을요. 아무리 천사가 말해도 믿기 쉽지 않을 내용이며 설사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당장 살면서 예상 되는 고난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질문은 상당히 다릅니다. 저였으면 그 상황을 거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부름심을 받아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라 했을때 처음에 거절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 거절이나 거부가 아닌 처녀의 몸으로 잉태에 관한 질문이였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상되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 기본이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답도 받았고요. 여기서 저는 이 마리아의 질문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강절묵상 2 Sam Chun (천동혁) 교우
묵상 성경 말씀: Micah 4:1-5 & 5:2-4

Micah 4 starts with a mountain, of the House of the Lord, which stands tall above all. Out of Zion comes the new Law and men of the Earth flock to this mountain to learn of His ways and to follow His path. This symbolism for Christ is showing us a future of hope, where Christ has become a standard and a refuge for the nations.

The next part is very striking. As it details the changes the mountain of the Lord brings to this Earth. He judges between nations, decides disputes for far away nations, all their weapons are made into farming tools, and all men sit, and rest peacefully vine and tree.

A wonderful image of the future that seems unimaginable today. As we see war tear across this Earth and man tear each other apart over minuscule things, we pray and rejoice that Christ who came and is to come, will bring a new rule and mountain from which the Earth will be shaken.

대강절묵상 3 조성경 교우
묵상 성경 말씀: 디도서 2:11-3:7

대강절이 끝나가는 지금,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날에 분명 다시 오실텐데, 그 사이에 놓인 시간이 한없이 길어 보여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잊고 홍진에 묻혀 살기 쉽게 됩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각자가 애착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기도 하고, 그러한 열망의 감정에 서로를 시기하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크레타의 신도들도 그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 (2:13)을 회복하여 기다림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2:11)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2:12)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일견의 현실적인 질문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소망" (3:7)에 근거해야만 답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가족, 친구, 이웃이 되어야 하며, 화이부동하여 덕성있는 시민으로 충실하게 살면서도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윤리적 삶은 세상에 안락하게 머무르려는 처세술이 아니라, 과도기와 미결정 상태의 긴장을 유지하는 기다림의 자세에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의 삶, 현실을 차분히 파악하고 행동하면서도 영생의 복된 소망에 모든 걸 내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연말 연초의 흥분도 가라앉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선한 일" (3:8)에 전념하는 기다림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년에 한 번 성경 일독 하기" 첫 운에 맞춘 시

김문소 은퇴장로

<일> 일하며 성경 읽기 미루어 오다가

<년> 년말에 성경완독 목표를 두고서

<한> 한 두 장씩 성경말씀 이곳저곳 읽어가며

<번> 번번히 어려운 성경말씀 대할 때면

<성> 성경이 나를 읽을 여유를 갖게하니

<경> 경외의 심정으로 또 다시 읽게 되고

<일> 일일이 주석책 열심히 찾아가며

<독> 독후감 요약하던 구약 꿰뚫기 생각나네

<하>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시도다

<기> 기도와 감사의 성경완독 일년이라

2014. 12.21

교육 3부 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익 집사

교육3부는 현재 8개의 이야기식 성경공부반과 1개의 강의식 성경공부반으로 매주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암송구절을 외웠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완독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예년보다 많은30분의 성도들이 무사히 성경을 1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는 판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여 송년모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성경퀴즈대회를 하였는데 교육3부 중 6개의 반과 중고등부가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열띤 경쟁을 벌인 이 행사에서 놀라운 순발력과 뛰어난 성경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한 김영순 권사님이 우리교회의 '퀴즈신동'으로 당당히 등극하시며 안드레반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말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중고등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올 한해 성경 1독하신 분들과 암송구절들을 모두 외우신 분들을 추첨하여 드린 선물들은 홍경자 장로님, 이윤찬(중고등부), 한유주(주일학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암송과 성경일독에 참여하여 우리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소중한 새싹들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교회는 소그룹에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합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나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번째 희년을 소망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교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3부 부위원장인 이재익집사(goodrct@hotmail.com)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023 Bible Trivia event

Jack Kim (Junior, Youth Group)

The Bible trivia event was simultaneously a great way for the different groups in our church to come together in friendly competition and to generate interest in learning about the Bible and the history of our church. It is rare for the Youth Group to interact with a young adult group or a senior bible study, but the divisions mattered little as each group's delegates competed before a crowd of fellow church members. In competition, there was unity, and most people showed their opponents love like a good Christian should. Having Bible verses to memorize also helped incite interest in learning about the Bible, as having to learn verses would naturally create interest in similar stories, overall increasing the average interest in the Bible. Overall, the event was great, and our church should do it again.

David Kim (L, Sophomore) & Jack Kim (R, Junior) ;
They won 3rd place, Representatives of youth group

부부청년부

회장 홍정표 교우

부부청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엡 2:19-22) 표어 아래 월 3회 이상 대면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이요한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사경회로, 다른 한 주는 형제자매모임, 새가족 환영회, 베이비샤워, 조모임 등 교제를 통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부부청년부를 찾아 주신 김요한/손정인, Adam Choi/백은채 가정과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생명을 허락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는 베이비샤워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일봉/오지원 가정 (득녀 강세린 11/11)과 Adam Choi/백은채 가정 (득남 Russell Choi 12/13)에서 새생명을 출산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정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신준섭/박예리 가정이 12월 초 타주로 이주하게 되어 함께 아쉬움을 나누는 송별회도 가졌습니다.

한국 문화 축제에서는 한글로 이름써주는 코너를 맡아 방문해주신 여러 분들에게 한글 이름 책갈피를 만들어드리고, 한 켠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 수 있는 곳도 만들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부부청년부 헌신예배와 총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청년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의 헌신예배를 올려드렸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이끌어갈 부부청년부의 새로운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회장: 홍정표/박미영 가정,
부회장: 심상길/심세희 가정,
총무: 양원제/최효영 가정

항상 부부청년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소개 시리즈 (3)
남서 구역

구역장 김옥식 장로

저희 남서 구역은 교회에서 9번 도로 서쪽으로 Natick에서 Westboro 선상 부근에 있는 가정들로 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일명 Boro 구역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보스톤 초창기 미국 교회 역사에 Sudbury 에 교회가 세워지고 먼 마을에서 힘들게 걸어오는 교인들을 위해 Marlboro에 교회를 세우고Marlboro를 중심으로 같은 이유로 Westboro, Southboro, Northboro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을들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아마 저희 남서구역의 부흥확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atick, Ashland에서 4 Boro와 Boylston 까지 교회에서 9번 서쪽으로 1시간 거리까지 구역원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교회가 멀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구역에서 함께 지내셨던 홍도화 집사님, 권오훈 장성주 집사님, 이창호/한정인 집사님 가정이 타주로 떠나셔서 섭섭했던 빈 자리를 새로운 네 가정들이 오셔서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젊은 가정들 덕분에 3 세대가 모이는 새로운 구역모습이 되었습니다.

봄에 있었던 한가족 찬양제를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 윤성철/ 에스더 전도사님 가정이 California에서 Sudbury로 이사 오시고 구역에 오시게 되면서 찬양제 준비를 인도해 주시게 되었고 같이 먹고 떠들고 마음껏 찬양하며 준비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평생을 피아니스트로 교회 반주자로 섬기셨던 김선숙 장로님은 1960년대에 디트로이트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플로리다에 계시다가 Northboro로 오시게 되었고 우연히 Marlboro식당에서 만난 인연이되어 저희 구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해서/김지희 집사님 가정은 찬양팀에서 신나게 섬기고 계시며 animal doctor이신 나집사님 덕분에 구역의 강아지들도 행복해 합니다. 11월에 구역에 오신 홍선표/김주리 님은 Intel에서 software engineer 로 계셔서 Hp에서 hardware engineer 이신 이재일 집사님과 좋은 대조를 이루며 앞으로 기대되는 한 쌍이 되실 것 같습니다.

늘 교회 살림을 알뜰살뜰 보살피시는 이정규장로님, 김영미권사님, 그리고 늘 웃음을 제공하시며 구역 카톡방에 좋은 글과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최창열 집사님과 배성희집사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신 정광근/이동화 집사님 부부는 교회들어 오시면 처음 마주치는 교회의 얼굴마담(?)이기도 하시면서 구역에서는 모르는건 정장로님에게 물어보면 해결되는 해박한 해결사 이시기도 합니다.

김형범 이계순 장로님 부부는 저희 구역을 오랫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운전이 불편해 참석은 현재 못하고 계시지만 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성격의 차이도 많지만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눠준 구역에서 함께 기쁨과 아픔을 기도로 나누는 남서구역이며 사람들이 '항상 먹을것이 많은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옥식 장로, 최창열 집사, 이정규 장로, 윤성철 전도사, 이재일 집사, 정광근 장로, 홍선표 교우와 딸 홍지연

칭찬합니다~

반백년의 찬양대 헌신 -한승희 장로/ 김경애 권사

칭찬합니다~

반석처럼 변함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이 분, 김영돈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아마 10년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듯한 김영돈 집사님을 저는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교회에서 힘들고 일 많은 위원회 중 하나인 교인위원회에 제대로 컴퓨터를 만질 줄 아는 분이 없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김영돈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싫다는 소리 없이 항상 긍정적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조용히 누비며 우리를 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송실에서 든든한 방송 기사로 또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총무 겸 회계 겸 서기 겸 많은 감투의 무게를 홀로 이겨내고 계시는 집사님은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총각이셨는데, 몇 년 후 한국에서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아내를 모시고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조용하게 꼼꼼한 성격으로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한 번 꽂힌 이야기를 시작하면 말솜씨가 얼마나 구수한지 어린애들과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재미있어 경청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뿜으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어디로든 떠나는 여행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들어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멋진 플랜을 많이 가지고 계시답니다. 음식에 관해서도 상당한 connoisseur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 세계 여기저기를 직접 찾아가는 시식 여행도 하시는 분이랍니다. 이 많은 매력 중에 단연 으뜸은 그의 빛나는 성실함과 겸손함 입니다. 교회 여러 분야의 드러나지 않는 구석을 더 열심으로 아끼고 충성하시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보물 중에 한 분 입니다. 김영돈 집사님! 당신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칭찬합니다!!!

<편집자 주>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리아 여성회

회장 이소은 집사

마리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임직식 예배 후 온 성도님들이 친교를 나누며 드시는 비빔밥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양념장을 마리아 여성회에서 맡게 되었고 KCB 장금이 이연희 집사님께서 황금비율의 양념장을 만들어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비빔밥을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해외선교위원회를 통해 과테말라 김도언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의료 비품들을 사셔서 현지 선교에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9일 땡스기빙과12월31일 연말 한 해 감사를 기념으로 1부 다과에 맛난 떡을 성도님들께 대접했습니다. 특히 2부와 함께 주문하고 서빙하여 준비부터 뜻깊고 재미있는 다과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마리아 임원들의 수다 가득한 식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정을 나누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2월10일은 마리아 여성회 2023년 총회가 있었고요. 한 분도 억지로 함이 없이 자원함으로 2024년 임원단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마리아 여성회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약속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 놓고 주님의 일에 한 도구로 쓰여짐에 그저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12월 24일에는 상록회 어르신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모범적인 신앙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2023 마리아 여성회 총회를 마치고)

내년에도 마리아 여성회를 위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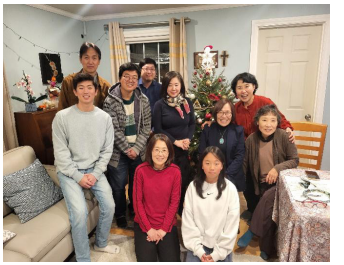
위원장 안성완 장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동안 주춤했던 단기선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12월 3일 실시된 국내선교 바자입니다. 1부 예배 후에는 친교실,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현관앞에서 실시된 바자로 총 $4,240가 모금되어 New Mexico에서 나바호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이덕재 선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바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교인분들과 바자 전날 포장과 당일 판매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내선교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는 12월 16일 교회 Parlor에서 이덕재 선교사님과 함께한 국내선교 세미나입니다.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나바호에서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덕재 선교사님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청하여 실시한 행사중 하나입니다. 당일 세미나에 이영길 목사님과 나바호 원주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15여 분이 참석하셔서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번째는 12월 17일 주일 1, 2부 예배사이 잠시 Youth group을 방문해서 Youth group 학생들에게 나바호 원주민 사역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 내년 선교일정(7/13/2024 – 7/20/2024)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번째는 12월 17일 주일예배 후 곽서영 집사님댁에서 그간 나바호 단기선교를 다녀온 단기선교팀과 선교사님이 함께 식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을 오픈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과거 선교단원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신 곽서영/정하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팬데믹 전에는 본교회에서 New Mexico 나바호 이덕재 선교사님 선교지에 단기선교단을 파송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의 활동을 정상화하고 선교에 관한 우리의 열정과 불씨를 다시 살리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자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등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국내단기선교 일정이 7/13/2024 부터 7/20/2024 으로 정해졌습니다.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선교지에서 날아온 소식

신에스더/박노아 선교사, 이집트

멀리 카이로에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을 전할까 하다가 이집트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독교 유적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콥틱정교회의 절기를 따라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성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마태 2:15 / 호세아 1:11)는 말씀은 이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구약성서의 출애굽을 통해 부여된 온갖 부정적인 애굽의 이미지는 이 말씀으로 반전됩니다. 이집트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보호받고 또 불림 받은 곳이 됩니다.

기독교의 사건들은 기억되고 전해지다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애굽 피신 이야기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거꾸로 살아있는 기억이 된 듯 합니다. 콥틱정교회는 Old Cairo 안에 있는 Abu Sergius and Baccus 교회를 그 장소로 지목합니다. 거기 있는 오래된 우물은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마신 물이라고 전해집니다. 다소 기이하기까지 한 사실은 예수님 가족들이 다닌 곳으로 지목된 곳마다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확대되어 급기야 카이로 나일 강가엔 아기 예수님 가족들이 파피루스 갈대로 엮은 배를 타고 Upper Egypt로 내려갔다는 전승까지 있습니다.

이쯤되면 콥틱정교회의 아름다운 전승이 너무 심하게 나갔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지만 어쩌겠습니까? 모카탐 산 수도원에는 세례 요한의 뼈가 있고 아바시아 대성당에서 성 마가의 뼈가 있다는 분들이니까요. 한장로님 내외분이 오셔서 직접 보신 곳입니다.

지난 주에는 미국장로교 선교부에서 이집트장로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해 미국장로교가 해외에 보유한 재산을 현지 교회에 이양하는 절차의 시작이며 현지 선교 파트너들과 대화하기 위한 일주일의 방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카이로장로교신학교를 설립하고 160년째 선생님들을 보내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실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스무 명과 대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우리교단 선교부 임원들은 이슬람권에서 미래 목회자로 훈련받는 학생들을 만나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도우며 지켜보는 저희들도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일행 중 한 분이 시내산 방문을 오랫동안 소망했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편도로 300마일이 넘는 사막 길, 원래는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도로 사정도 안좋아 10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걸 보았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고대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간 길이 저희들의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듬성듬성 나무가 보이는 거기 말고는 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면 베두윈 가이드를 만나 낙타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가파른700 계단을 오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멀리는 홍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된 여행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은 시내산 자락에 놓인 St. Catherine 수도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속하여 거주한 가장 오래된 이 그리스정교회 수도원은 기독교 역사의 보물입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곳에서 하루를 머물 수 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저희가 일하는 곳은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진 곳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가 사도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이슬람권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였는지, 카이로장로교신학교가 얼마나 귀한 기독교공동체인지, 그리고 카이로와 시내산에 남겨진 예수님 가족과 모세의 이야기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성지 순례를 오시면 꼭 이집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분주했던 가을학기를 끝내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일월부터는 한 달간 이어지는 계절학기를 갖고, 이월부터는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집트에서 8년의 사역을 마치는데 내년 초 저희 사역이 4년 연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 여름 미국을 방문할 때는 보스턴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의 평화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카이로에서

신에스더, 박노아 드림

선교사와의 일문일답

황신재 선교사, 칠레

자기소개
저는 황신재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공부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홀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있는 도중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대학에서 대학생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Calvin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nn Arbor에 있는 Michigan 대학에 공동체를 만들어 2세와 Multi-ethnic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대한 설명과 그 곳에 들어가게 되신 계기는?
Ann Arbor에서 목회를 하게 된 후, 초반에는 열정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니 관리(심방, 설교)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전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3가지를 중시합니다.

전도 (젊은이), 교육, 그리고 Mercy.
믿지 않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훈련해서 사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각자의 나라에서 섬길 수 있도록 13개의 나라에서 개척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안에 있는 대학교들을 찾아가면서 전도, 파송하는 센터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케냐, 인도, 동티모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사역을 한 후, 한 곳에 정착하여 선교하고 싶어서 2006년도에 남미로 가게 되었고, 첫 번째로 찾게 된 나라는 콜롬비아, 두 번째로 오게 된 곳이 칠레였습니다. 칠레에 온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를 알게 된 계기는?
미시간에 살던 시절에 미시간 대학에 후일에 보스톤한인교회 교우가 된 김민준 교수가 학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주위에 아는 교수들을 소개해주었고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간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분 소개로 보스톤한인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아내는 40대 초반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암이어서 한쪽 갑상선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나머지 한쪽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좀 힘들었고, 최근에는 코로나와 맹장이 한꺼번에 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약 복용하고 있고, 다행히 걷는 데는 아직 지장이 없지만 손이랑 다 굳어서 내색은 안 하지만 본인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계십니까?
네, 아들이 정착해 있는 위스콘신, 메디스에 있습니다. 미국에 잠시 들어온 지 2개월 되었습니다. 칠레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10월말에 수양회를 끝으로 한 해 사역을 마치고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보내게 됩니다. 내년 1월에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의 운전과 요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칠레에서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브라질로 다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Brazilian이 있는데 그 친구가 브라질로 가게 되어서 칠레를 마지막으로 (4-5년) 마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열방에 개척되는 나라에서 선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언어를 하시나요?
4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남미 속담에 “2개의 언어를 하면 2개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데 4 언어를 하니 4개의 인생을 사는 셈입니다.

칠레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역을 넓혀가는 방법이 한계가 있음을 느껴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함을 느꼈고, 교육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도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해보고자 취학 전 아동부터 5학년까지 다니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Hand made of God” 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사역자/선생님들이 계셨는데 팬데믹 이후로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교사들에게 봉급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PAY를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헌금으로 운영되어 가는데 선생님들이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volunteer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다른 paradigm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난민 사역?
난민 사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난민들을 받게 되면 그들과 오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계약에 의해 1년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RESEARCH 후에 시설에 맞는 숫자만 배정되며 초기에 7인 가족을 받았었습니다. 3번째 family로 무슬림 가족을 받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무슬림은 그들에겐 종교일 뿐 만이 아니라 언어, 문화 자체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나라에서는 Middle class 이상이고,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착에 필요한 Seed money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슬림들은 최고의 장사꾼들입니다. 함께 하는 1년 동안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돈을 벌지 파악하고 얼마 안가서 자기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Muslim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을 대를 거치면서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초대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Festive,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이 그런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부활절 파티 등을 열어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으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변심을 하게 되는데 정말 변화가 생깁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에게 성경읽기를 권유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너무 잘 외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을 잘 외웁니다. 아마 코란을 외우는 습관/문화 때문인 듯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사역이라 조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방의 집을 건축한 이유도 더 많은 난민을 받기 위해서고, 덕분에 이번에는 조금 더 받게 되었습니다.

칠레의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이곳에서 카톨릭은 종교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교회/성당에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하지만 문화적으로 카톨릭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시작인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남미에서 선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기가 복음주의 선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볼 때, 브라질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칠레가 그 다음입니다. 4년마다 센서스를 하는데 칠레 개신교 분포가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 중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칠레는 16-25세 분포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가 추수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도 합니다.

대학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종교가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restricted되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이름으로 강의실/강당 등을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 바깥/입구에서 텐트 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Digital Nomad 들의 선교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최근 세명의 제자들이 모잠비크, 브라질, 노르웨이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세계로 여행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YouTube채널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전하고 아울러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 근황

원영옥 권사

과테말라 김도언 선교사의 짧은 근황

현재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머물고 계신 김도언 선교사님 내외분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 참 반가웠습니다. 선교사님은 82세이심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다시 과테말라 치섹으로 가십니다. 어찌될지 모르지만 주님 인도 따르시느라 One way ticket으로 가신다는 말씀에 코 끝이 찡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셔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사 근황

하나님의 사랑

안지일/김은경 선교사, 프랑스

저희 부부는 아주 바쁜 매일을 보냅니다.

남편은 토요일 주일 사역 마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파트 타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저녁마다 일 대 일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되면 병원 방문을 합니다.

저도 주일 사역 마치고 일주일에 20시간 꼬빵에서 요리하고 주중에 언어교환, GNG 성경공부, 제자반 성경공부, 프랑스 청소년 모임,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집에는 늘 자고 가는 나그네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겨울 집회를 위한 바자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잠이 부족하다 느껴지는 요즘,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무거움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DIEU SAUVE
« NE PAS PLACER NOTRE CONFIANCE EN NOUS-M MES, MAIS UNIQUEMENT EN DIEU » 2 CORINTHIENS 1.9, BFC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9 KLB)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 부부가 되도록
안지일 선교사 건강과 김은경 선교사 허리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집자 주: 더 많은 안지일/ 김은경 선교사의 선교편지는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f.kakao.com/_IDPTG)

권사회
연말보고

회장 김둥숙 권사

시간은 어느덧 흘러 남은 시간은 마지막 잎새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 는 듯 2023년이라는 나무에 겨우 걸려있다. 1주간 10,080초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것인가 얼마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1초 1초가 주는 의미를 .....

물론 시간은 31,536,000초를 2024에 새로이 받을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지만" 이란 단어가 달린다. 모든 분들께 골고루 주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도 잘 살아내었다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보따리는 우리를 울게도 웃게도 만들었고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를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특히 2023년에는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뤘다. 그 행사에도 어김없이 아니 아낌없이 권사님들의 헌신도 함께 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

이제는 2023년의 마지막 남은 달력의 한 장 마저도 넘기려 한다. 수고하셨던 권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다시 전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는 2023년 권사회 활동을 돌아보자

2월 : 임시 총회(2/24/2023)
3월 : 세계 여성기도회(3/5/2023) 참석
3월 : 이영길 목사님 생신 축하 및 선물 전달
4월 : 홈리스 쉘트에 120분 도시락 전달
4월 : 동북 대회 여성 연합회 후원 및 정기 후원금 전달
6월 : 상록회 식사 대접 (50인분)
9월 : 청년 1,2 부 점심 제공
11월: 70주년 행사
음식준비
12월: 교역자 식사 대접

그외 활동및 선교 헌금.
신임 권사 임직 : 꽃 전달
국내, 해외 선교부 : 정기 후원금 전달
뉴멕시코 선교사님 후원금 전달
1부 다과 준비 - 마리아 협조
대강절 헌화 제공

이상 모든 활동에 권사님들의 헌신적 봉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은혜와 기쁨으로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선배 권사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며 건강하시길.

상록기도회

회장 이재명 집사

소식을 전합니다.

집사회에서 주관하는 가을 대청소회 때 저희 상록기도회에서는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 교우님들의 식사를 위해 떡과 잡채를 제공했습니다.

11월 4일에 있었던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한국문화축제”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하여 브룩크라인 주민들에게 한국의 미와 멋을 알리고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11월달에 있었던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탁구대회 운영진께 금일봉을 전달하고, 많은 상록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즐기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연말에는 상록기도회를 위해 마리아 여성회에서 성탄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주 1월7일 에는 “신년 떡국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상록기도회 회원님들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교우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은퇴 장로 기도회 (은.장.회)

김문소 은퇴장로

중보기도자: 교우 중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 13분입니다.

은장회는2023년10, 11, 12월에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 7시에 세번 Zoom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권복태, 김문소, 김형범, 박영철, 윤원길, 조준호, 최연일 이상 7분 장로들입니다.

기도 후 나누는 간증/강의는 10월에 박영철 장로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치료/치유의 말씀, 곧 Repair Gene이고, 11월에 윤원길 장로가 둘째아들과 London 방문후 Westminster Abby 가 영국의 역사라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조준호 장로가 이끌었는데,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의 '새노래'는 믿는자 각자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환우와 후세들과 목회자들 및 교회 70주년 행사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내 총기 사고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회원 근황은 김형범 장로의 장모되시는 신좌경 권사님이 109세로 아들 이강필 집사댁으로 오셨다합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 박영철 장로의 요약된 강의 내용을 나눕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치유합니다.

우리몸에는 A,C,T,G, 4 code 로 기록된 하나님의 message 가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message가 담긴 것을 life science 에서는 repair gene 이라고 부릅니다.

병의 치료를 위한 약은 치료를 돕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은 repair gene 즉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약 80억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repair gene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도 거의 같은 repair gene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모든 질병을 고칠수있도록 automation을 한 결과 입니다.

한국 문화 축제 (Korean Cultural Festival) 후기

70주년 행사 부위원장 김대식 집사

"한국 문화 축제"를 왜 우리 교회에서 개최해야 할까? 영사관이나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저에게 이 문화 축제의 준비와 진행에 직접 참여하며 변화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이번 행사의 주제인 "우리 이웃과 나누는 감사: Sharing Gratitude with Neighbors"와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담은 초정 메일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의 초청 메일을 여러 차례 퇴고하면서, 이 행사에 대한 의미를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날인가 제가 집사람에게 행사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0년 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배려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감사함을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보스톤한인교회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보스톤 지역의 다양한 이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Presbytery assembly 와 일 년간의 COM 활동을 돌아보며

총대/COM Ruling Elder 이혜승 장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나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만들어졌던 Social norm이 상황에 따라 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팬데믹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Is it really?

지난 3년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많은 교회들이 시작하게 된 온라인 예배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세대와 찰떡처럼 합이 맞다보니 예상보다 더 활성화되면서 굳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 손가락 클릭 하나만으로 원하는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Celeb pastors 의 라이브 설교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팬데믹 중 시작된 온라인을 통한 성도의 교제 방식은 팬데믹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가 그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가 그렇고, 구역예배가 그렇고, 당회 미팅, PCUSA 미팅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편합니다. 멀리 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어느 곳에 있던지 미팅에 조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시간대에 더블로 미팅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발달이 가지고 온 혜택을 온전히 누릴수 있게 셋업이 된 아주 훌륭한 방식입니다. But are we okay with it? Are we missing something important because of this comfort zone?

2023년 1월부터 PCUSA 보스톤 노회 Committee on Ministry (COM) 에서 봉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네 미국장로교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고 알아가게되는 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고 많아 지긴 했습니다. 7명의 ruling elders & 7명의 teaching elders 와 함께 매 달 모여 전입/전출하는 교역자 분들을 인터뷰하고 협력이 필요한 교역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며, 보스톤 노회에 속해 있는 26개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봄의 사역을 함께 의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맡게된 직책이었지만 본교회가 가지는 미국장로교 보스톤 노회에 대한 리더쉽 의무와 책임을 배우고 이수하게 되면서 많은 은혜와 나눔을 배우게 됩니다.

본교회가 팬데믹 동안 struggle했던 것처럼, 많은 다른 교회들도 큰 장벽에 부딪히며 고생했고 아직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수의 교인들을 잃었고, 교역자를 잃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모임이 유지되지 않아 폐지한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조짐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스톤노회에 속하는 26개 미국장로교회 중 full time 교역자가 본교회를 포함하여 2개 교회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년 넘게 교역자를 못 구해 장로들이 주일예배를 온전히 맡아 운영해야되는 교회도 있고, 3개월 6개월 단위의 part time 교역자로 한 주 한 주 힘겹게 메꾸어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 주일 많이 모이면 12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있고, 82세의 반주자가 매 주 주일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본교회가 일꾼 부족으로 허덕이듯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일 당 백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각각 계시더군요. 모든 교회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매 달 COM 미팅에서 다루어지는 수많은 교역자들의 어려움과 각 교회의 도움을 청하는 사연들을 접하며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해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지난 10월에 오랜만에 in-person meeting 으로 Presbytery of Boston Special Assembly가 있었습니다. 26개 교회에서 20여명 정도 참여한 미팅이었습니다. 팬데믹 후폭풍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우리들에게 필요한 leadership에 대한 토론과 강연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토론하며 함께 걱정하고 또 각 교회에서 통했던 해결책도 나누며 유용한 정보교환과 유익한 채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만 쉐어하자면, 흩어져버린 between people 의 연결고리를 다시 ground zero부터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comfort zone에서 빠져나와 in-person의 교제가 주는 기쁨과 따뜻함, 사랑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에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그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며 미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다보면 많이 지치고 “Why me? Why now?” 를 외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마음(솔직히 말하면…많은 경우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마음으로 ㅠㅠ 주님 용서하소서 ㅠㅠ) 으로 겪어내고 보면 그 때 그자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발자국이 하나 더 그려져있음을 배웁니다. ‘아 이것을 이루시려 나를 그때 그 역사의 도구로 쓰셨구나’를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뻗어나감을 체험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끊이지않고 이어진 예배와 감사, 찬양과 기도의 울림통 역할을 잊어선 안됩니다. 특히 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봉사자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한능력 사역 채널을 공급해주셨고, 그로인해 우리는 아직도 교회공동체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pandemic generation 의 multi task function 과 globalism 에 잘 어울리는 온라인 사역채널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Comfort zone에서 때로는 뛰쳐나와 in-person 성도의 교제에 적극 참여하고, 조금은 나 자신에게 챌린지가 될 수 있는 사역에 뛰어들어 부딪혀보면서 나의 섬김의 자세를 재정비해 나가다보면 아마도 점점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 재정비하시고 계시는 그의 큰 그림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팬데믹시대를 통해 더 큰 세상, 더 많은 사역의 채널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울타리를 통해 PCUSA 소식 간간히 전하겠습니다. 우리 보스님의 꽉 채우시는 축복의 순간순간으로 풍성하신 새해 2024년 모두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교인동정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단기 신앙생활을 마치고 떠나면서

박경옥 집사/김용철 집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0:21)"

1세대 + 2세대 + 3세대 = (진행 중)

저는 2022년에 딸이 보스턴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3개월 동안 도와주러 왔었고 2023년에 또 새학기를 맞이하며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작년에 살금살금 교회 본당 주일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리라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예배시간을 잘못 알게되어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반(강의식 성경공부반)으로 먼저 안내를 받고 주일예배까지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매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요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민 생활에서의 여정을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수십 년 동안 기적과 같은 삶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쳐 계획하신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심을 깨닫게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또한 저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의 끈을 견인하시는 주님께 매달리는 삶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보스톤한인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 교우 동정
예수의 흔적

최정열 집사

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대답을 해 주시는데 엄마 아버지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크다보니 엥? 모르시는게 있더라고요…. 아.. 그 때의 실망감.

좀 더 커서 중학교 쯤 가서 세상을 보니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것이 집안도 예전 같지 않고 부모님도 힘들어 하시는 게 어…이게 아닌 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들 못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남들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게…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 세상이 좀 잘 못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비록 내 자신은 못 해도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 대한 문제로 끝없는 방황. 피하고 싶은 방황, 그로 인하여 소진한 나의 인생. 세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양보하고 도와주면 될텐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게 없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교회에서 보이는 얼굴이고, 현실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안되고,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고, 또는 누구를 핑계 삼아 못 한다고 해 버리는 습관적인 생각. 교회에 나가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아니..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열심히 하면 안 되나?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만큼 밖에 못 하나???

그리고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보낸 세월….그리고 어느 날 나를 보던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보니 남편 등급을 매기는데 따져 보니 너는 C급 정도 되더라.” 아…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쇼크 받았어요. 내가 C급 밖에 안 되는 가장이라니.

세례 받고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자전거 쳇바퀴 돌아가듯 버릇처럼 되어 주일되면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찬양하고, 소셜 만남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교회에서 할 일이 생기면 싫은 소리 안 듣게 적당히 하고….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주” 라는 믿음이 딱 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모두들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들 하지요.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 덧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그 동안 뭐 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생각이 많은데, 따지고 보니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 다 장성하여 자식 걱정 없고, 손자 없으니 손자 걱정할 일 없고, 아내랑 둘 다 아직은 건강하니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없고, 형제들 잘 지내니 형제들 걱정 없고, 직장 있으니 당장은 살아갈 걱정은 없고.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사는 것인데, 이런 생활이 나에게 가당키나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불안도 잠시 하나님이 계시니 알아서 해 주시겠지. 뜻대로 하시겠지.

남들은 은퇴자금도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하는데 나는 은퇴자금도 별로 없는데 어쩌지? 하며 살아갈 걱정도 잠시 뿐 하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 세상 고난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바뀌니 그것도 별로 고민이 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 인생은 저 인생보다 훨 나으니 그것도 별로 걱정이 안 되고.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했나 하고 굳이 따지고 보니
기쁨. 은혜. 감사. 평안. 사랑. 찬양. 기도.

이제 나이가 웬만큼 든 지금은 아무 일에라도 너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는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날들에 감사하고 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희노애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도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예수의 흔적” 그게 바로 이런 걸까요?.

2023년 12월 31일 아침에
최정열 집사

2024년 새해 덕담
2023년12월31일 예배 영상 중

김문소 은퇴장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소 은퇴장로입니다.

2023년 교회장립 칠십주년 여러 행사를 잘 마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밤 무슨 꿈을 꾸셨나요? 용꿈이요? 용꿈은 권력이라는데요.
새해는 '갑진년' 입니다.
'갑'은 하늘의 색인 십간 중 처음인 '파란색'이고,
'진'은 땅의 동물인 십이지 중 다섯번째인 '용'으로, 새해는 '파란 용띠'해 입니다.
'파란 색'은 포용력이 강하고, '용'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강한 힘의 상징이랍니다.
그러면 '용띠'해에 일어난 우리교회 모습을 돌아 볼까요?
12년전2012년 '까만 용띠해 임진년' 표어는 '감사하는 회중' 입니다.
ECC 머리돌 현판 설치와 Time Capsule이 봉입되었고, 또 시내산 동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4년전 2000년 '하얀 용띠해 경진년' 표어는 '세계를 향한 교회' 입니다.
페루 단기선교단이 처음 파송되었고, 또 이영길 목사님이 중국 연변 '희망의 집'을 방문하고
시작된 연변 희망촌 지원이13년간 계속 되었습니다.
36년전 1988년 '누런 용띠해 무진년' 표어는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선교적 교회' 입니다.
한글학교에서 '보스톤한국학교' 가 되었고, 또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가 설립되어
부활절 연합예배와 체육대회 등 연합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8년전 1976년 '붉은 용띠해 병진년'에 어머니 주일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시작되었고,
또 청년부가 발족되었습니다.
60년전 1964년 '갑진년'부터 한달에 한두번 드리던 예배를 매주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꿈꾸신 힘의 상징인 '파란 용'처럼 우리 모두가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진
한인 동포로서 미국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한해가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편집후기

연말연시 할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한울타리 겨울호 건너뛰고 봄호 발행하려 굳게 맘을 먹고 있었으나… 역쉬나 내 맘대로 되는거 한 개 없는 하나님 일 ㅠㅠ 한울타리 끝내고 바로 사순절 묵상집 만들어야된다는데…. 편집지옥 ㅠㅠ 우리 하나님은 왜 또 이리 굴리시는지… 맘에 안드시면 일 더 시키시는 자상한 우리 아부지 하나님. 반성하는 맘으로 오늘도 밤 꼴딱- 켁-
(편집짱 헤덜리)

1월 1일을 한울타리 1차 수정 마무리로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편집짱 헤덜리 장로님의 다정한 부르심과 카리스마 지존 한나 장로님의 수정자의 몫에 대한 안내에 따라 최선을 다한 1차 수정본을 넘기며… 자상한 우리 아부지 하나님의 굴리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당^^
(텍사스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다음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의 최선의 공을 던지는것. 그것이 마감의 규칙이다. '마감 일기 에서'
(마감근육이 필요한 한울타리3번선수)

이번 호에는 별로 도움을 베푼것이 없다. 하지만 만들어진 밥상, 반찬에 깨소금을 조금 뿌린 정도? 하지만 깨소금도 작품의 일부? ㅍㅎㅎㅎ
(여전히 그림자 편집위원)

나날이 알차고, 감동있는 기사들이 차고 넘치는 한울타리 소식지... 고된 편집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신나는 마음으로 늘 수고하시는 멋진 한울타리 편집위원들...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림자 편집위원 2 ^^^)

교회 행사 및 모임 안내

1월 7일: 신년주일

2월 4일: 제직임직식

2월 14일: 재의 수요일

2월 18일: 사순절 예배 시작

2월 25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3월 3일: 세계여성기도회

3월 17일: 여성회 헌신예배

3월 24일: 고난.종려주일 예배

3월 29일: 성금요일 예배

3월 31일: 부활절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